사라져가는 노동요·직업… 그에 대한 기록

애월·한림·한경지역 '제주노동요' 보고서… 민요 280곡 채록
이발사·표구사 등 10인 구술집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했다. 제주인의 공동체 문화유산인 '노동요'를 찾아, 근현대 직업세계를 이어오며 삶을 지탱해 온 이들을 찾아 모아 글로 적어냈다. 그 안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 보고서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1-애월읍·한림읍·한경면'을 펴냈다. 제주인의 공동체 문화유산인 '노동요'를 찾아 나서고 이를 모아 담아낸 첫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서 오랜 세월 불러 온 노동요는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문화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제주노동요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노동요가 더이상 자연스런 전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제주시 서부지역인 애월읍 애월리·유수암리, 한림읍 귀덕리·금악리, 한경면 저지리·조수1리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주노동요를 비롯 의식요, 유희요, 전승동요 등을 담았다. 38명을 만나 '밧볼리는소리', '사데소리', '마당질소리', '해녀노젓는소리', '아기흥그는소리' 등 280곡의 제주민요를 채록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이발소에서만 머리를 깎고 어린 아이들도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여자 아이들도 이발소에 와서 머리를 잘랐어. 그래서 이발소가 엄청나게 바빠서 마씸."

제주에서 50년 넘게 이발사 외길을 걸어온 강종한(1954년생)씨가 15~16세쯤 한림의 한 이발소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그때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통해 자립해야 했던 시대의 고단함과 이발업의 변화상이 그의 말을 통해 전해진다.

제주도문화원연합회가 펴낸 구술집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1'은 사라져 가는 직업을 가진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1950~1980년대 제주 사회를 배경으로 40~50년간 일평생 해온 매일의 노동과 생활이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발사 강종한씨를 비롯해 미용사 고복신(1956년생)씨, 표구사 구봉식(1953년생)씨, 최남단 어부 김병수(1966년생)씨, 자전거를 제작·수리하며 살았던 김주형(1957년생)씨, 제주시 동문통에서 3대에 이은 미싱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연화(1953년생)씨, 신부상을 잘 차리는 '세철이 어멍'이라 불리는 송월자(1940년생)씨, 평생 일기를 쓴 향토 사학자 양신화(1939년생)씨, 스틸사진가 우명률(1949년생)씨, 역술인 정성필(1943년생)씨 등 10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이승수의 '잔향의 테이블'.

선 조각으로 다시 꺼낸 작업실의 잔향

이승수 '가득한 빈'전
22일까지 갤러리애플

제주 이승수 작가의 개인전 '가득한 빈'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갤러리애플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지역성과 자연에서 얻은 감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선 작가가 오랜 시간 머물러 온 '작업실'의 잔향을 선 조각으로 재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의자, 심봉대, 난로, 모루, 장갑, 안전화, 작업 앞치마 등 작업실을 구성하던 사물들이 구리 선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만, 작가는 완전한 형상이 아닌 껍질만 남은 상태로 이를 표현한다. 이러한 선 조각들은 바닥과 벽, 공중에 흩어지듯 배치되고, 빛과 그림자를 통해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낸다.

갤러리 측은 "이는 채우기보다 비워내기를 택한 작가의 조형 언어 실험이며, 덩어리보다 선으로 말하고자 한 조용한 응시의 기록"이라고 전한다.

작가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현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시는 이달 22일까지 이어진다. 이달 16일과 17일은 휴관한다. 갤러리애플은 제주시 연북로 399에 있다.

박소정기자

"올해 영화 20편 무료 상영"
서귀포예술의전당 8개월간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올해 20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애니메이션, 음악·뮤지컬·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준비한다.

이번 무료영화 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한 후 올해로 11년째다. 올해는 이달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운영된다.

우선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특집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이달 진행한다. 지난 5일 '슈퍼소닉3'를 시작으로 '바다 탐험대 옥토넛'(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샤크스쿨'(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이 상영된다.

박소정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487>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꼴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시인이 씬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ᄒᆞᆫ 디서 '산자고'에 대ᄒᆞᆫ 시 이왁을 ᄒᆞ여보켜."

- 산자고 -

봄벵뒤 마ᄑᆞ름에 바싹 엎더진 냥
매날 매날 감장도는 그 사름 셍각
가심이 알리키여 눈이 고프키여
경ᄒᆞ여도 ᄒᆞ건 기렵뎅 ᄀᆞᆫ지 말라
기렵뎅 ᄒᆞ는 말은 ᄀᆞᆫ는 게 아니여
먼 하늘 바리멍 ᄒᆞᆫ 송이 꼿으로
곱들락이 핀 향기가 기려움이여

하니ᄇᆞ름 주왁주왁 허운데기 튿어도
밤새낭 오몽ᄒᆞ는 그 사름 셍각
가심은 ᄐᆞᆯ랑ᄐᆞᆯ랑 눈은 왁왁ᄒᆞᆯ 테주
경ᄒᆞ여도 ᄒᆞ건 기렵뎅 ᄀᆞᆫ지 말라
기렵뎅 ᄒᆞ는 말은 ᄀᆞᆫ는 게 아니여
먼 바당 바리멍 ᄒᆞᆫ 송이 꼿으로
ᄉᆞᆯ째기 핀 향기가 기려움이여

<계속>

<자료:양전형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제주어 풀이

*벵뒤(벵듸) ; <이름>넓은 벌.
*마ᄑᆞ름(마ᄇᆞ름) ; <이름>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많고, 따뜻한 기운이 있는 바람으로, 이 바람에 비가 올 확률이 높음.
*엎더지다(업대다,업더지다,엎대다) ; <움직>배를 바닥에 대고 쓰러지다.
*엎더진 냥 : 쓰러진 채로. *그 사름 셍각 ; 그 사람 생각.
*가심이 ; 가슴이. *알리키여 ; 아리겠구나. *고프키여 ; 고프겠구나.
*기렵뎅 ᄀᆞᆫ지 말라 ; 그립다고 하지 마라. *ᄒᆞ건 ; 어떻튼.
*ᄀᆞᆫ는 게 아니여 ; 말하는 게 아니다. *바리멍 ; 보면서.
*ᄒᆞᆫ 송이 꼿으로 ; 한 송이 꽃으로. *곱들락이 ; 곱게.
*기려움이여 ; 그리움이여.
*하니ᄇᆞ름(하늬ᄇᆞ름) ; <이름>북쪽에서 불어 오는 바람.
*허운데기 튿어도 ; 머리카락 뜯어도. *밤새낭 ; 밤새껏.
*오몽ᄒᆞ는 ; 움직이는. *왁왁ᄒᆞᆯ 테주 ; 어둡게 될거야.